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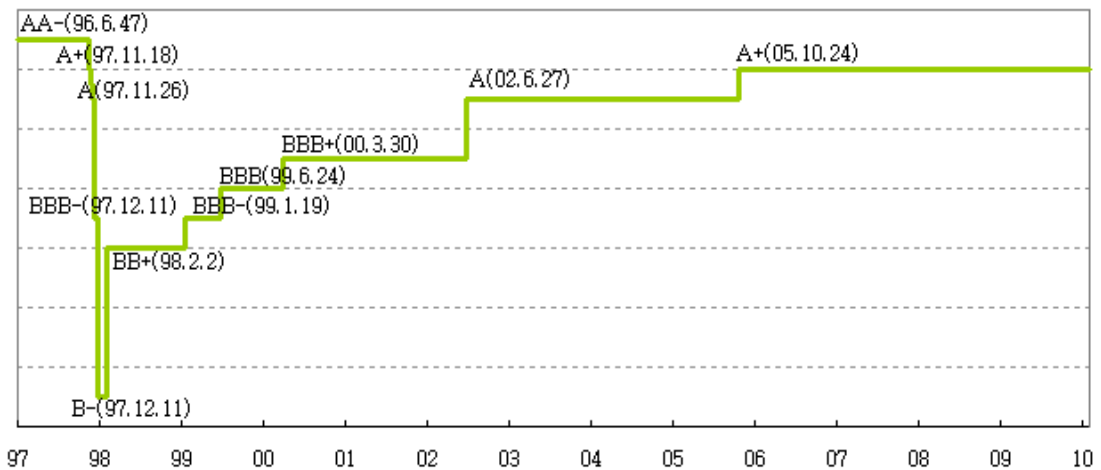
신용평가회사 피치, 한국 신용등급 전망 상향조정

김세중 선임연구원

■ 11월 7일 신용평가회사 피치는 한국의 신용등급을 기존의 'A+' 로 유지하고 신용등급 전망은 '안정적' 에서 '긍정적' 으로 상향조정한다고 밝힘.

- 피치는 한국의 신용등급을 2005년 10월 이후 A+로 유지하고 있으며, 금융위기 직후인 2008년 11월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조정으로 한 뒤 2009년 9월 다시 '안정적'으로 상향조정한 바 있음.
- 일반적으로 신용등급 전망 상향조정 후 1년 정도 경과한 시점에서 신용등급도 상향조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 'A+'인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이 내년에는 외환위기 이전 수준인 'AA-' 등급으로 상향조정될 가능성이 높아짐.
- 외환위기 이전 'AA-'를 기록한 바 있는 우리나라 신용등급은 외환위기 당시 'B-' 수준까지 하락한 후 점차 회복세를 나타냈으나 여전히 외환위기 이전보다는 낮은 수준인 'A+'를 기록 중임.

〈그림 1〉 피치 한국 신용등급 추이



자료: e나라지표.

■ 피치는 신용등급 전망 상향조정의 이유로 양호한 재정건전성, 통화스와프 체결을 통한 대외 건전성 향상, 한국 경제의 빠른 회복력 등을 언급하였으며, 위험요인으로는 내년 대규모 외채 만기도래액, 가계 부채 문제, 높은 대외의존도 등을 지적함.

- 피치는 보고서를 통해 한국은 재정건전성이 양호하고 통화스와프 체결, 외환보유액 확대 등으로 대외 건전성도 향상됐다고 밝혔으며, 수출기업의 높은 경쟁력과 탄력적인 환율제도로 경제 회복력이 높다고 평가함.
- 그러나 피치는 2012년 만기가 도래하는 대외채무가 예년의 세 배에 달하는 660억 달러로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으며, 2010년 말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가 132%에 달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미국, 호주, 영국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지적함.
- 이에 대해 최종구 기획재정부 국제업무 관리관은 대외채무 상황에는 어려움이 없으며 가계부채는 개선되는 모습이 나올지는 두고 봐야 한다고 밝힘.

■ 한편 피치의 신용등급 전망 상향조정이 S&P와 무디스의 신용등급 전망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음.

- 무디스의 톰 번 아시아·중동 부사장은 2011년 9월, 한국 정부의 재정이 튼튼하고 지정학적 위험도 완화되고 있다면서 신용등급 상향 조정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으며, S&P도 한국 경제에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그러나 신용평가사마다 분석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피치의 신용등급 전망 상향조정이 다른 신용평가사의 평가에 바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하기는 어려움.

〈표 1〉 신용평가회사별 한국 신용등급과 전망

신용평가회사	무디스	S&P	피치
신용등급	Aaaa	AAA	AAA
	Aa1	AA+	AA+
	Aa2	AA	AA
	Aa3	AA-	AA-
	A1	A+	A+
	A2	A	A
	A3	A-	A-
신용등급 전망	안정적	안정적	긍정적

자료: e나라지표.

(Bloomberg 등, 11/7)